

완도 미역산업 위기 극복 팔 걷었다

미역 대풍·수매량 감소 가격↓ 대책 간담회 6억4천만원 투입 긴급 매입... 계약재배 추진

완도군이 미역 과잉생산에 따른 위기 극복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생산량 증가 및 기존 재고물량 등으로 완도 미역산업이 가격 하락과 수매량 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 어업인들은 지난 2016년 가을 미역시설시 이상 해황으로 수차례 조망가 폐쇄해 2017년 미역시설시에는 조망량을 늘려 시설했다. 해황까지 좋지 않자 생산량은 50%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관내 23개 가공업체가 보유한 2017년 산 물량, 중국의 미역작황 양호, 인근 고흥군의 해황 양호 및 생산량 증가로 미역은 지난해 kg당 145원에 판매됐으나 현

재 60~80원 선으로 낮아졌다. 이마저도 설 연휴와 가격 협상 지연으로 수매가 늦어지고 수매량 또한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세트로 된 양식시설이 사라져 조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자간 미역을 수매 포기하고 함께 긴급하게 제거하는 실정이 됐다. 이에 완도군은 최근 미역 관련 수산양식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가공업체, 어업인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일 도장 어촌계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최저 가격인 상태에서 시설보호를 위해 수확을 포기하고 바



완도군은 최근 군청에서 미역 관련 수산양식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가공업체,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역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에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생산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당, 금일, 약산에서 참석한 어촌계장들도 완도군이 발 빠르게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완도군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을 실시하고 총 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공용 미역 생산지구에서 미역을 긴급 매입할 예정이다. 긴급 매입 가격은 바다에 폐기되는 양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많은

양을 매입함과 동시에 현 시세에 맞는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양식어민, 수협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매입한 미역은 전복양식 어가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잔여량은 가공, 보관해 가을철 먹이로 공급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장기계획으로 미역생산여건과 가공공장 연계 계약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미역품질 양식, 과잉생산 방지 및 건강한 미역생산을 위한 가공용 미역 생산 해역 어장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미역이 바다에 폐기 처분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매입을 통해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겠다”며 “미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량종묘 공급, 친환경부표사업, 미역가공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옥 기자



신안군은 지난 21일 제406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군청사에서 화재 대피 훈련과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했다.

신안 민방위 날 화재 대피 훈련

신안군은 지난 21일 '제406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군청사에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2시 정각 화재경보기와 청내방송으로 훈련 시작이 알려지자 전 직원과 민원인은 비상계단을 이용해 질서 있게 청사 밖으로 대피했다. 이어 소화기 사용법 실습과 남도안전학당 김덕관 강사의 심폐소생교육, 화재현장에서 대처방법 등을 습득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오재선 부군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대응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과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꿈이있는집, 전원어린이집 등을 비롯한 각 시설에서도 민방위 화재 대피훈련이 실시됐다. /신안=이주열 기자

신안 전국 최초 '자전거 여행 보험' 가입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자전거 여행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전거 여행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3월21일까지 1년으로 신안을 찾는 자전거 관광객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1인당 2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치료가 보장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일부 아스콘 포장도로를 제외한 180.5km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 받는다. 신안군은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기구축된 해안도로, 방조제길, 농로, 노두길 등 총 연장 455km '천도천색 천리길'을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또 지난 1월 자전거길 총연장 500km 확대 개편을 통해 전국 1,200만 자전거 관광객을 끌어들이길 계획이다. 박상규 관광정책담당은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자전거 여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전거 여행 편의를 위해 자전거길 전 구간에 안내 이정표도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해남 낙지 전문 위판장 준공

26일 개장식...연간 40억 위판고 전망

해남 낙지를 전문적으로 판매할 낙지 위판장이 문을 연다. 해남군은 북평면 남창리 오일시장 인근에 해남군수협수산물위판장을 준공, 오는 26일 개장식을 갖는다. 총사업비 10억원(국·군비 70%, 자담 30%)을 투입해 1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들어서는 낙지위판장은 1동 2층 533㎡의 규모다. 해남산 낙지를 비롯해 굴, 고막, 갈매 등 각종 수산물을 위판하게 된다. 특히 연간 200여톤이 생산되고 있지만 개인 집회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낙지의 위판이 가능해지면서 어가 수익 창출과 함께 서남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해남

낙지의 명성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판은 중매인을 통해 해남군수협에서 실시, 일반인과 대도시 등에 판매를 할 계획이다. 안정적 판교가 확보된다면 연간 40억여원의 위판고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판장 2층에는 시식 코너를 마련해 최대 수산물 산지인 북평면 갯벌과 연계한 맛길 먹거리 관광의 명소로도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은 세발낙지를 비롯해 꽃낙지, 빨낙지 등이 계절별로 생산되는 서남해 최대의 낙지 공급처였으나 70년대 이후 간척 사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

현재는 연승, 통발, 맨손어업 등 방법으로 350여명의 어민들이 낙지잡이를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그 동안 위판장이 없어 중간 상인들에게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의 낙지가 해남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등 원산지 확인이 어려웠다”며 “위판장 운영으로 해남산 낙지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낙지 위판장 신설과 함께 올해 신규로 낙지자원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 9,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3개소에 낙지 산란장을 조성한다. /해남=박병태 기자

진도 농수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공동브랜드 '진도아리랑' 경쟁력 강화 기대

진도군이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재 표준 디자인을 개발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개발 품목은 농산물 5개 품목, 수산물 6개 품목, 임산물 3개 품목, 가공품 4개 품목, 선물세트 2종, 선물포장지 3종으로 총 20종이다. '품목별 포장 디자인'은 포장재 디자인의 통일성과 보배섬 진도 정정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지난 2016년 특허청에 등록된 정정농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진도아리랑'과 함께 보배섬 진도

군의 대외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기대된다. 진도군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욕구와 유행에 맞는 품목별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억원의 예산을 지원,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 우선 사용 등 고품격 디자인 표준안 보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관계자는 “포장재 표준 디자인은 진도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진도군이 최근 개발한 농수특산물 포장재 표준 디자인으로 만든 진도올금 포장박스.

“업체별 포장재 디자인 제작비용의 원가 절감, 상품의 고급화를 통해 수출업체와 소규모 농어가 등 군민소득 1조원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주목! 이사람



고길호 신안
군수는 23일 오후 4시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3월 중 읍면장 회의에 참석한다.



전동평 영암
군수는 23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55회 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신우철 완도
군수는 23일 오전 10시30분 청산면사무소에서 군민행복정책도크 투어를 실시한다.

영암 논 타작물 재배 접수

영암군이 오는 4월20일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쌀 공급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를 재배한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을 심으면 ha당 400만원, 일반작물은 340만원,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한다.

올해 영암의 논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전남 1만698ha의 9.7%인 1,037ha다. 영암군은 읍면 세부지침서, 읍면별 목표 설정, 홍보 플래카드 게시, 사업지침 설명회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벼 재배시설 확인 농지에 1,000㎡이상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다. 지원 대상 작물은 1년생을 포함한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되나 재배면적 확대시 수급과잉이 우려되는 고추, 무, 배추, 대파 등 수급 불균형 품목은 제외된다. /영암=최복섭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목포 010-3272-2765
- 011-632-0323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클릭! 내고장 소식



완도경찰, 치매노인 맞춤형 순찰

완도경찰서 신지파출소가 노인 맞춤형 탄력 순찰을 실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맞춤형 순찰은 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고독사, 실종, 미귀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임병진 서장은 “보건지소, 노인생활관리사와 관내 독거노인 47명을 대상으로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옥 기자



함평 월야면 경로 위안잔치

함평군 월야면은 최근 월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어르신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월야면 청년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65세 이상 노인 700여 명을 초청했으며 떡국 대접과 함께 공연도 열렸다. 안성호 월야면 청년회장은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에 고생하셨을 어르신들께 공경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린 담양 만들기' 다짐대회

담양읍사무소는 최근 읍사무소에서 '클린 담양 만들기 100일 미션'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번 미션은 '담양 지평 1,000년의 해'를 맞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깨끗한 마을 안길 만들기, 불법 광고물 없는 가로환경 조성, 도로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목표로 한다. 김성환 읍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담양의 품격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장동원 기자



장흥 장동면 어르신 목욕봉사

장흥군 장동면은 지난 21일 지역 홀몸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목욕하고 영화 보는 날'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이 평소 즐기지 못하는 문화생활을 누리고 색다른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은 장동면 공공목욕장에서 목욕을 마치고, 정남진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김광재 면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